

# 14~20世紀 新疆關係 國內歷史文獻

金 浩 東

## I. 概 觀

1.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기원전 張騫의 西域使行이나 저 유명한 마르코 폴로의 東方旅行 등이 東西古今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욕을 자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지역에 대한 우리들의 역사적 이해가 그리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 까닭에 대해 논자들마다 각기 의견이 다르겠지만, 필자의 관점으로는 크게 두가지, 즉 연구방법과 연구여건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연구방법상의 문제라 함은 중앙아시아에 관한 근대적인 연구가 서구 제국주의의 손길이 아시아의 奧地에까지 미치는 19세기에 시작된 이래, 考證的·言語學的·文獻學的·交流史的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세기 당시의 歐露人들은 그들이 즐겨 사용하던 “Asiatic”이라는 수식어가 암시하듯이 중앙아시아사회를 “永遠한 無氣力”(millennial torpor)속에 빠져있는 인류사의 遲進兒로 보았고, 그들이 채용한 역사방법론도 결국 靜態的이었거나, 交流史가 말해주듯이 迂廻的이었다. 물론 지금은 전보다 훨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는 없지만, 전통의 잔재는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있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각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즉, 交流史라 하더라도 관점의 중심을 중앙아시아로 옮겨

東西간의 文物의 교류 혹은 넓게 그 힘의 충돌이 어떻게 이 지역의 역사변화에 작용했는가를 추구해야 하리라고 본다. 그와 아울러 유목민과 오아시스민간의 관계(南北關係)도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부각되어야 하며, 이러한 東西交流·南北關係에 대한 주체적인 시각과 함께 중앙아시아사회의 內的인 발전의 계기들을 찾아냄으로써 總合的이고 力動的인 역사발전을 탐구하는 것이 今日的 과제이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통일적으로 실현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람직한 연구여건의 조성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연구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사료의 부족으로서, 특히 토착 사료의 심한 빈곤으로 인해 주변민족들이 남긴 자료들 가운데 단편적인 조각들을 이음질하는 일종의 “patchwork”이 되기가 십상이다. 비록 조각들이나마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언어를 배워야하고, 결국은 投與된 노력에 비해 成果는 부실하지 않는가 하는 자가당착을 느끼게 된다. (넓은 의미의) 사료를 떠난 역사연구자를 생각할 수 없다면,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방법론의 재정리·다양화를 통해 주어진 한계에 도전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료부족의 문제가 중앙아시아연구가 불모상태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그렇지만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는 있으며, 이것이 이번 조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라고 하더라도 東西투르크케스탄을 모두 포함하여 通時代的으로 고찰하는 것은 조사자 개인으로서는 벅찬 작업이어서, 일단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14~20세기 東투르크케스탄으로만 한정하였다. 조사대상은 국내의 몇몇 규모가 큰 도서관에만 제한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국내 소재상황의 전모를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대로 전반적인 윤곽은 드러나리라고 본다.

목록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중국측 사료의 상당량은 국내에도 갖추어져 있으나, 서방측 자료가운데에는 빠져 있는 것들이 적지 않았고 무슬

립사료는 전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환경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가지 안타깝기도 하고 일면 부끄럽기도 한 것은 국내에 현존하는 사료의 다수가 日帝시대에 日本人들의 손에 의해 수집된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의 舊圖書가 가장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있음이 그것을 입증한다.

내륙아시아에 관한 국내 학계에서의 관심의 범위가 우리와 비교적 역사적 접촉이 잦았던 북아시아, 그 중에서도 동북아시아에만 국한되어 있어 투르케스탄지역으로까지는 확대되지 못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아, 목록에 수록된 사료들의 특징과 성격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리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한 방편으로 간략하지만 史料概觀을 첨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특히 국내에 전혀 없는 무슬림측 사료들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기로 하겠다. 이하 1760년경 淸의 新疆征服을 중심으로 전후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14세기 후반 차가다이汗國의 분열에서부터 淸에 의한 정복에 이르기까지 4세기간에 걸친 시기에 관해 사료의 부족은 가장 두드러진다. 서방측 기록은 부재하고 중국사료도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여 약간의 무슬림사료만이 정치사의 재구성에 자는 빛을 던져주고 있는 뿐, 계급관계·토지소유관계 등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는 매우 힘든 형편이다.

얼마되지 않는 토착사료 가운데에서 당시 中亞 유목민 지배집단의 동향을 아는데 유니크한 것이 *Tārīkh-i Rashīdī*(『라시드史』)이다. *Mīrzā Muḥammad Ḥaydar*의 손에 의해 1547년 카쉬미르에서 완성된 이 史書는 이미 일찍부터 사료적 가치가 널리 인정되어 많은 무슬림史家들은 물론 서방학자들도 자주 이용하였고, 1895년 E.D. Ross의 영역본이 출간된 이래 페르시아어 원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긴요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당대 최고의 유목귀족출신인 저자가 先祖들로부터 口傳되어 온 이야기와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서술한 激動의 세기의 생생

한 기록이다.

『라시드史』 이후의 공백을 메워주는 유용한 사료가 Shāh Maḥmūd Churās의 *Tārīkh-i Rashīdī Dhaylī*(『라시드史續編』)이다. 1676~1677년 경에 집필된 이 작품은 페르시아어 원본의 유일한 사본이 현재 모스크바의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13년 A.Z. Validov에 의해 타쉬켄트에서 발견된 이 사본은 극소수 러시아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이용되지 못하였었는데, 최근 O.F. Akimushkin이 사료적 가치가 높은 부분의 印刷本과 함께 역주를 출판함으로써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최근 中國의 한 학자가 발표한 논문속에 또 다른 사본이 인용되고 있는데, 필자가 추정하는 바로는 현재 중국에 있는 것은 저자 생전에 이루어진 東투르크어 번역본의 사본이고, 모스크바本에는 제목이 없어 학자들이 막연히 *Tārīkh-i Churās*(『추라스史』) 혹은 *Khronika*(『年代記』)라고 불러왔지만 실제로 그 제목도 『라시드史續編』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두 작품 이외에 淸정복 이전 18세기 전반까지의 東투르크스탄史를 다룬 또 다른 사서가 알려져 있다. 저자·서명·저작연대가 모두 不明이고 단지 *Tārīkh-i Kāshghar*(『카쉬가르史』)로 불리워지고 있는 이 작품은 레닌그라드의 東方民族研究所에 소장되어 있고, 필자는 직접 구득할 기회가 없었고 단지 간략한 소개나 抄譯만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카쉬가르史』와 『라시드史續編』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까지 關連학계에서는 전자가 후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작품들이 모두 “tārīkh”라는 이름이 붙은 (혹은 그렇게 간주되는) 年代記的 歷史書라고 한다면, 토착 무슬림사료들 가운데에는 이와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는 그러나 역시 사료로서는 유용한 가치를 지닌 “tadhkira”, 즉 이슬람 神秘主義者(ṣūfī)들의 傳記類가 있다. 필자의 관찰로는 이같은 聖者傳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두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주인공의 系譜(nisbat)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행한 異蹟(karāmat)이다. 경우에 따라 전자는 血緣的 系譜(nisbat-i ṣūrī)와 精神的 系譜(nisbat-i ma'navī)로 나뉘어 기록되기도 한다. 저술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史書類(tārīkh)가 忘却되어가는 과거 제왕·귀족들의 일을 기록함으로써 기억을 영속화시키려는 분명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傳記類(tadhkira)는 특정한 神秘主義 教團 혹은 거기에 속한 대표적인 종교지도자를 찬양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확보하거나 합리화하려는 教派的 의식을 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傳記들의 상당수는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없거나 무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6세기 이후 tārikh 대신 tadhkira가 東투르케스탄에서 보다 중요한 장르로 자리잡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비판적인 역사의식의 퇴조라는 정신사적인 단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神秘主義교단들 가운데 초기 東투르케스탄 주민들의 改宗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우와이시教團(Uwaysiyya)에 관한 몇 종의 傳記가 우선 지적될 수 있다. 모글汗國의 군주 'Abd al-Rashīd 汗(r.940/1533-34~967/1559-60)의 시대에 궁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Pir Muḥammad Sharīf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Tadhkira-i Boghrā Khān*(『보그라汗傳』)은 우와이시教團을 연구하는 데에 일종의 “Who's Who”라 할만큼, 많은 수의 우와이시長老들의 事蹟을 적고 있다. 저자의 생애를 기록한 *Tadhkira-i Khwāja Muḥammad Sharīf*(작자불명)도 간략하기는 하나 사료로서 유용하게 쓰인다. 이 밖에도 쿠차에 근거를 두었던 카타키系長老들에 관해서는 *Tadhkira-i Jalāl al-Dīn Katakī*와 *Tadhkira-i Irshād*가 있다.

16세기 중반경부터 우와이시教團을 압도하고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립한 것이 낙쉬반디教團이었는데, 東투르케스탄에서는 이 교단에 속한 호자(和卓=khwāja)들이 궁극적으로 聖俗 양면의 지배

자로 군림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 관해 적지 않은 傳記가 남아 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이고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1768년 경에 쓰여진 Muḥammad Ṣādiq Kāshgharī의 *Tadhkira-i 'azīzān*(『호자傳』: *Tadhkira-i Khwājagān*이라고도 불리운다)인데, M. Hartmann과 R.B. Shaw의 抄譯이 출판된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낙쉬반디敎團의 大師였던 Makhdūm-i Azam의 후손들, 즉 카쉬가리아 호자들은 黑山黨과 白山黨의 양파로 나뉘어 치열한 싸움을 벌였는데, 비록 저자가 전자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준가르지배기에 관한 희귀한 기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淸의 新疆정복 과정을 중국측 사료가 아니라 토착주민의 기록을 통해 그들의 관점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사료로서의 가치는 높다.

낙쉬반디敎단의 호자들에 관해 『호자傳』만큼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몇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우선 『라시드史續編』의 저자인 샤마흐무드 추라스의 *Anīs al-Tālibīn*(『求道者の 벗』)인데, 初代 칼리프들(khulafā'-i rāshidīn)과 이맘(imām)들에 관한 기록인 第1部는 크게 참고될 것이 없으나, 黑山黨의 비조 Khwāja Muḥammad Ishāq의 후예들에 관한 第2部는 큰 도움이 된다. 이스학 개인의 전기로는 현재 二種이 알려져 있고, Muḥammad 'Iwād의 *Ziyā' al-Qulūb*(『마음의 빛』: 1012/1603-04年 완성)과 Shāh Muḥammad b. Husām al-Din의 *Jalīs al-mush-taqīn*(『求道者の 벗』: 1008/1599-1600年 완성)이 그것이다. 白山黨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Khwāja Hidāyat Allāh(일명 Khwāja-i Āfāq)의 전기들도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Hidāyat-nāma*(『濟道の 書』)이다. (表 I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淸정복 이전 동투르크스탄史 연구에 있어 그런대로 아쉬운 공백을 메워줄 만큼의 페르시아語・東투르크語 사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수피長老들에 관한 개인적인 내용이나 비사실적인 기록으로 일관되어 있어 사료로서는 엄연한 한계

〈表 I〉 清정복 이전 新疆관계 주요 무슬림사료

(\*는 조사자가 求得치 못한 것)

	書名	言語	著者 (譯者)	著作 (번역) 年 度	所在地・分類 번호	葉數
Tārīkh	<i>Tārīkh-i Rashīdī</i>	P <sup>⓪</sup>	Mīrzā Muḥammad Haydar Dughlāt	1547	(英) British Library: Or. 157 外 다수	352
	<i>Tārīkh-i Rashīdī</i>	T <sup>⓪</sup> 譯	Muḥammad Niyāz b. ‘Abd al-Ghafūr 譯	1308/ 1890-91	(英) India Office Library: Ms. Turki 1 外	214
	* <i>Tārīkh-i Rashīdī</i>	T <sup>⓪</sup> 譯	Muḥammad Sādiq Kāshgharī 譯	19 <sup>⓪</sup> 중엽 이전	(蘇) LO INA AN SSSR: C 569	316 (p.)
	<i>Tārīkh-i Rashīdī Dhaylī</i> (一名, <i>Tārīkh-i Churās</i> )	P	Shāh Maḥmūd b. Mīrzā Fāzil Churās	1087/ 1676-77	(蘇) Gosudarstvennaia Biblioteka im. V.I. Lenina (모스크바): V. Pers. 11	85
	* <i>Tārīkh-i Rashīdī Dhaylī</i>	T <sup>⓪</sup> 譯	?	1098/ 1687寫	(中) ?	?
	* <i>Tārīkh-i Kāshghar</i>	T	不明	不明	(蘇) LO INA AN SSSR: C 576	105
Tadhkira	<i>Tadhkira-i Boghrā Khān</i>	T <sup>⓪</sup> 譯	Khwāja Muḥammad Sharīf 著 Muḥammad Kudā b. Muḥammad Ibrāhīm 譯	16 <sup>⓪</sup> 1193/ 1769-70	(蘇) LO INA AN SSSR: D114 (佛) 巴里 Bilbiothèque Nationale: Suppl. Turc 1286外	282 375
	<i>Ziyā’ al-Qulūb</i>	P	Muḥammad ‘Iwāḍ	1012/ 1603-04	(蘇) LO INA AN SSSR: A1615 (美) Harvard大 Houghton Library: uncatalogued	144 143
	* <i>Jalīs al-mushtaḥīn</i>	P	Shāh Muḥammad b. Ḥusām al-Dīn	1008/ 1599- 1600	(蘇) LO INA AN SSSR: A232	?
	<i>Anīs al-ṭālibīn</i>	P	Shāh Maḥmūd b. Mīrzā Fāzil Churās	ca. 1107/ 1696	(英) Oxford大 Bodleian Library: Ms. Ind. Inst. Pers. 45	107
	* <i>Rafīq al-ṭālibīn</i>	T <sup>⓪</sup> 譯	Abū Manṣūr 譯	번역년대 不明. 12 81/1864- 65寫	(蘇) LO INA AN SSSR: B771	96
	<i>Tadhkira-i Jalāl al-Dīn Katakī</i>	T	不明	不明	(瑞) Lund大. G. Jarring Collection: uncatalogued(old No. 163)	40

<i>Tadhkīra-i Irshād</i> (一名, <i>Kitāb-i Tūghlūq Timūr Khāning Qisāslari</i> )	T	不明	1280/ 1786寫	(佛) 巴里 Bibliothèque Nationale: Suppl. Turc. 1006	114
<i>Hidāyat-nāma</i>	P	Mīr Khāl al-Dīn al-Kātib Yārkandī	1143/ 1730-31	(英) British Library: Or. 8162外	231
<i>Tadhkīra-i 'azīzān</i> (一名 <i>Tadhkīra-i Khwājagān</i> )	T	Muhammad Šādiq Kāshgharī	1768	各國에 寫本 다수	

- ① Persian
- ② 東Turki
- ③ Leningradskoe Otdelenie Instituta narodov Azii Akademii Nauk SSSR (蘇聯科學院 아시아民族研究所 레닌그라드支部)의 略字.

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대다수가 번역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活字化 되지도 않는 상태여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까닭에 비록 풍부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汗들의 敕書(yarliq) 라든가 土地賜與文書(waqf-nāma) 등을 十分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程溯洛씨의 보고에 의하면 新疆각지에서의 자료수집 결과 상당수의 檔案·書籍類가 社會科學院 民族研究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공개되면 향촌통치의 구조·토지소유의 상황 등 보다 심층적인 연구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토착자료 이외에 중국측 기사나 티무르朝의 기록이 있지만, 매우 단편적이다. 明代의 사료로는 『明實錄』에 포함된 사신들의 來往기사가 우선 꼽힐 수 있는데, 이는 일본학자들의 공동작업으로 『明代西域史料』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그 밖에도 『明史』의 「西域傳」, 鄭曉의 『皇明四夷考』, 嚴從簡의 『殊域周咨錄』, 葉向高的 『四夷考』, 茅瑞徵의 『皇明象胥錄』 등에서 부분적인 언급들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티무르朝에 사신으로 다녀온 陳誠·李暹 등의 『西域行程記』·『西域番國志』 등은 직접 관찰에 의거한 흥미로운 기사를 담고 있다.



티무르朝측의 사료들 역시 단편적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으나, 다른 諸史料들과 비교·검증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宮中史家들의 작품인 Nizām al-Dīn Shamī의 *Zafar-nāma*(『勝利의 書』), Sharaf al-Dīn 'Alī Yazdī의 *Zafar-nāma*를 들 수 있고, 기타 Mu'in al-Dīn Naṭanzī의 *Muntakhab al-Tavārīkh*(『史抄』), Amīn Aḥmad Rāzī의 *Haft Iqlīm*(『일곱세계』), Hāfiz-i Abrū의 *Zubdat al-Tavārīkh*(『史集』), 'Abd al-Razzaq Samarqandī의 *Maṭla' al-sa'dayn va majma' al-baḥrayn*(『星辰의 興隆과 河海의 合流』), Maḥmūd ibn Valī의 *Baḥr-asrār fi manāqib al-akhiyār*(『信徒의 美德에 관한 神秘의 바다』) 등이 있다.

3. 18세기 중반 淸의 新疆정복 이후 東투르케스탄史 연구에 있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료의 풍부함이다. 가능하면 모든 것을 文書化하려던 중국의 전통왕조와 다름없이 淸朝 역시 제국의 강역으로 새로이 편입된 지방에 대한 치밀한 조사와 더불어 행정을 위한 참고자료의 작성등은 오늘날 우리에게 귀중한 사료들은 남겨두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 무슬림반란과 그로 인한 淸지배의 잠정적인 붕괴는 주변들의 주체의식을 일깨워 적지 않은 역사서를 출현케 하였다. 이렇듯 풍부한 자료에 힘입어 일본의 羽田明·佐口透, 소련의 L.I. Duman·V.S. Kuznetsov, 미국의 J. Fletcher 등에 의한 밀도있는 연구도 가능하였다.

淸朝의 제사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물론 『大清歷朝實錄』이다. 上諭文만을 싣고 있어 일면적인 것도 사실이지만 淸의 신강통치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이며, 백(伯克) 관리들의 入京朝覲이나 任免기사도 포함되어 있어 토착관리층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비해 중요한 外征이나 반란진압에 관한 上奏·上諭들만 따로 모아 日附順으로 편찬한 “方略”은 淸代에만 보이는 독특한 장르로서 만주

지배족의 武功을 의식적으로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다. 東투르케스탄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는 傅恒 등이 奉敕하여 편찬한 『欽定平定準噶爾方略』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모두 三編(前·正·續)으로 이루어졌으며 康熙 39년(1700)부터 乾隆 30년(1765)까지가 포함되었다. 준가르부의 평정기사가 주된 부분을 차지하지만 東투르케스탄, 즉 回部の 정복과정도 상세히 드러나 있고, 아울러 정복 당시 중요 도시의 戶口數는 물론 준가르지배시 공납의 내역도 소개되어 있다. 또한 1820년대 白山黨系 호자의 후예인 Khwāja Jahāngīr의 침입사건과 그 진압에 관한 기사를 수집한 『欽定平定回疆勦擒逆裔方略』이 있고, 1860~1870년대 신강의 무슬림반란 진압과정을 다룬 『欽定平定陝甘新疆回匪方略』이 있다.

方略 이외에 중요한 사료로서 地誌類를 들 수 있다. 乾隆帝가 準·回部 평정의 쾌거를 마친 뒤 이를 기념하기 위해 戰勝碑·寺刹의 건립과 함께 세밀한 現地조사에 근거해 각종의 자료를 편찬토록 하였다. 즉, 前記한 『準噶爾方略』의 참고서 격으로 만들어진 『十三排地圖』·『西域圖志』·『西域同文志』 등이 그것이다. 제주이트선교사들까지 동원하여 1770년에 완성시킨 十三排地圖는 그 규모에 비해 정확도는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까지 중앙아시아에 관한 지리지식의 총체적인 결집으로서 19세기 후반 英露人들의 과학적 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가장 우수한 지도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西域同文志』는 新疆·青海 등지에 관한 地名·人名사전으로서 3천개가 넘는 고유명사가 그 뜻과 함께 滿·蒙·漢·藏은 물론, 아랍文字와 준가르인들이 쓰던 托忒文字(Toto Bichig)등 모두 6종의 상이한 문자로 표기되어 있어 언어학적 가치도 뛰어나다. 『西域圖志』는 唐대에 편찬되었다가 亡佚된 同名의 책을 잇고 乾隆의 신강획득을 기리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準回兩部에 관한 일종의 百科全書이다. 冒頭에 황제 자신의 御製文을 싣고 이어 天章·圖考·列表·晷度·疆域·山水·官制·兵防·屯政·貢賦·錢法·學校·封爵·風俗·音樂·服物·土產·藩屬·雜錄의 순으로 체제가 이루어져 있다.

이상이 정복직후인 高宗代의 官撰的 성격을 갖는 地誌라면, 蘇爾德的 『回疆志』(1772)와 椿園의 『西域聞見錄』(1777)은 모두 私撰으로서, 官撰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서구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그 일부가 번역되거나 직접·간접으로 연구에 이용되었다.

嘉慶代에 들어와서도 지지의 편찬은 이어져 和寧의 『回疆通志』, 松筠의 『西陲總統事略』과 『新疆識略』 등이 현지 관리들의 행정참고서로 이용되었다. 이들은 乾隆代의 것들과 비교를 함으로써 清代 신강통치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긴요하게 쓰이고 있으며, 道光期에 들어와서도 『哈密志』·『孚化誌略』 등이 만들어지고 있고, 清代 최후의 신강지지로서 『新疆圖志』가 있다.

이러한 方略·地誌類 외에도 『大清會典』·『戶部則例』·『回疆則例』 등의 則例類는 제도사 연구에 필수적이고, 『欽定外藩蒙古回部王公表傳』과 같은 傳記類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개인文集類로서 자항기르침입의 善後처리를 담당했던 那彥成의 『那文毅公奏議』, 19세기 후반 신강재정 복에 참여한 左宗棠의 『左文襄公全集』·劉錦棠의 『劉襄勤公全集』, 20세기초 楊曾新的 『補過齋文牘』 등이 있다.

청조측의 사료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적 풍부한 것에 반해, 1760~1860까지 1세기 간의 清지배기 동안 토착사료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칸드汗國의 사료로서 Mullā Niyāz Khōqandī의 *Tavārīkh-i Shahrukhiyya* (『샤루흐朝의 역사』)라든가 Mīrzā Shams Bukhārī의 回顧錄등이 자항기르·유습 등 호자들의 침입에 관해 단편적인 도움을 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이 되어 상황은 一轉되었다. 그 까닭은 서구열강의 상품시장을 위한 쟁탈전의 격화로 그 손길이 아시아의 구석 구석에 까지 미치게 되었고, 外壓과 內訌에 시달린 清朝는 1864년 무슬림의 大反亂으로 신강에서의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아, 신강의 주민들은 이러한 거대한 변혁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기각

〈表 II〉 19世紀 후반 新疆反亂관계 주요 무슬림사료

(\*는 조사자가 求得치 못한 것)

書名	言語	著者	著作年度	所在地・分類번호	葉數
* <i>Amir 'Alī</i>	T	'Ashūr Akhūnd b. Ismā'il b. Muḥammad	1280/ 1863-64	(蘇) LO INA AN SSSR: C759, C580	106, 94
* <i>Badaulat-nāma</i>	T	Muḥammad 'Umar Marghinānī	1308/ 1890	同上: C587	61
* <i>Buzkhān Tūram bilan Yāqūb Begni vaqi'asi</i>	T	不明	不明	(佛) L'Institut de France: Ms. 3398-7	6
<i>Dāstān-i Muḥam- mad Ya'qūb Beg</i>	T	Mīrzā Bī	1294/ 1877-78	(英) India Office Library: Ms. Turki 6	20
* <i>Ghazāt al-muslimin</i>	T	Muḥammad Ṣāliḥ Yārkandī	1281/ 1864-65 (?)	(蘇) LO INA AN SSSR: B3980	16
<i>Ghazāt dar mulk-i Chīn</i>	←	Mullā Bilāl	1293/ 1876-77	公刊(N.N. Pantusov)	166 (p.)
<i>Ghazāt-i muslimin</i>	T	不明	不明	公刊(E.D. Ross)	53 (p.)
* <i>Ghūljāning vāqi- 'atlarining biyāni</i>	T	Qāsim Beg	19 <sup>c</sup> 末寫	(蘇) LO INA AN SSSR: B4018	15
* <i>Jam' al-tavārikh (一名, Tārikh-i Ya'qūb Badaulat)</i>	T	Hājji Yūsuf b. Mullā 'Ashūr b. Qurbān Ṣūfī b. Safar Bāy	1907-08	同上: D124	352
<i>Janāb-i Badaulatni hikāyatları</i>	T	Aḥmad Qulī Andijānī	1322/ 1904-05	(美) 하버드大 Hou- ghton Library: uncatalogued	28
* <i>Jang-nāma</i>	T	Muḥammad 'Umar Marghinānī	1305/ 1888	(蘇) LO INA AN SSSR: B292	5 <sup>r</sup> - 46 <sup>r</sup>
* <i>Qānūn-nāma-i 'asākir</i>	T	不明	1879- 80(?)	同上: B1022	45
* <i>Risāla-i Khāqān ichidā Tunganları qilghan ishi</i>	T	不明	19 <sup>c</sup> 末	同上: C579	17
* <i>Rashīd al-Dīn nāma</i>	T	Qārī Najmī al-Dīn	1860年代	同上: C584	2 <sup>r</sup> - 37 <sup>r</sup>

*不 明	T	Ghiyāth	1860年代	同上 : C584	38 <sup>r</sup> - 47 <sup>r</sup>
* <i>Risāla-i maktūb</i>	T	Muhammad Ṣālih Yārkandī	1860 "	同上 : C584	88 <sup>r</sup> - 97 <sup>r</sup>
<i>Tadhikra-i Hājji Pādishāh Habib Allāh vā Rāshidin Khān vā Ya'qūb Beg</i>	T	Muhammad A'lam	1894	(佛) L'Institut de France: Ms. 3348-8 (蘇) LO INA AN SSSR: B2332	49 61
<i>Tadhkirat al-najāt</i>	T	Dāud Kurlaliq	1282/ 1865-66	(英) India Office Library: Ms. Turki 4	73
不 明	T	Tālib Akhūnd b. Mullā Ni'mat Mingbegi (Khotan)	1899	(瑞) Lund大 Gunnar Jarring Collection: Prov. Nos. 115, 116, 117	81+ 129 +31
<i>Tārikh-i amniyya</i>	T	Mullā Mūsa b. Mullā 'Isa Sairāmī	1903	公刊本(N.N. Pantusov)外 5種	
<i>Tārikh Hamidi</i>	T	同 上	1908	(瑞) Lund大 Gunnar Jarring Collection: uncatalogued 外	134
<i>Tārikh-i jarīda-i jadida</i>	T	Qurbān 'Alī valad-i Khālid Hājji Ayāgūzī	1306/ 1886-87	公刊本(저자)外 3種	
* <i>Tārikh-i nāma-i Ya'qūb Khān</i>	T	Muhammad valad-i Mīr Ahmad Shaykh Gharīb	1316/ 1898	(蘇) LO INA AN SSSR: B772	78
<i>Tārikh-i Shihārī</i>	P	'Abd Allāh Pānṣad	1291/ 1874	(英) British Library: Or. 8156	107
* <i>Yāqūb Begdin ilgāri Kāshgharni alghan Siddiq Begning dāstān tadhkirasi</i>	T	Qādī 'Abd al-Bāqī Kāshgharī	1865寫	(英) India Office Library. Ms. Turki 3	28
<i>Zafar-nāma</i>	T	Muhammad 'Alī Khān Kashimīrī	1284/ 1867-68	同上 : Ms. Turki 5	95
* <i>Zafar-nāma</i>	T	Muhammad Shaqīr	1866	(中) Urumchi?	?

성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성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케 하였고 많은 수의 저술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이 당시(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두에 걸쳐) 쓰여진 저작들의 수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약 30種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소련에 있고, 나머지가 英·佛 등지에 산재해 있다. 중국에도 적지 않은 자료들이 있으리라고 추측되나 1957년 Mukhlisov의 카탈로그 이후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어 알 길이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들에 관해 일일이 소개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다음 <表 II>를 참조하기 바라며, 그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것에 관해 서만 간략한 설명으로 補할까 한다.

우선 1864년 무슬림반란의 전모와 야쿱 벅의 통일과정, 그리고 淸의 재정복에 이르기까지의 신강사정을 아는 데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Mullā Mūsa Sairāmī의 *Tārīkh-i amniyya*(『平安의 歷史』)를 꼽을 수 있다. 19~20세기 중앙아시아 역사학의 금자탑이자 그 수준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이 작품은 저자의 투철한 역사의식과 합리적 정신에 근거한 사료비판과 균형있는 서술로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저술 직후인 1905년 N.N. Pantusov에 의해 카잔에서 活字本이 출판되었을 정도이다. 이와 아울러 호탄에서의 반란경과를 아는 데 Muḥammad A'lam의 *Tadhkira-i Hājjī Pādishāh*가, 쿠차반란에 대해서는 Dāūd의 *Tadhkirat al-najāt*(『救濟傳』)이, 그리고 일리반란에는 Mullā Bilāl의 *Ghazāt dar mulk-i Chīn*(『中國에서의 聖戰』)이 중요한데, 특히 후자는 叙事詩體로 쓰여져 있어 文學的 가치도 높다. 'Abd Allāh Pānşad의 *Tārīkh-i ṣighārī*(『小史』)는 야쿱 벅과 함께 호칸드汗國에서 카쉬가리아로 와 그의 副將으로 용맹을 떨쳤던 저자 자신의 체험이 담긴 것으로서, 야쿱 벅 一行의 到來배경과 통일과정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19세기 후반으로 들어서서 위구르주민들의 각성과 함께 이처럼 토착 사료의 양이 급증하는데, 이와 더불어 특기할 만한 사실은 歐露人들의 기록도 차제에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中央아시아에서의 英露의 각축

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같은 여행기·조사보고류의 선구를 이루는 것이 Ch.Ch. Valikhanov의 글이다. 1961~1972년 Alma-Ata에서 5권의 全作集 속에 모두 실린 그의 글(1984~1985년에 改訂版)은 발란전야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에 불가결하다. 카자흐王公의 아들로 帝政러시아의 군관이 된 그가 中亞상인으로 위장하여 1850년대 후반 신강을 방문, 체류도중 면밀한 관찰과 메모를 기초로 당시 隊商무역의 루트·도시와 촌락의 분포상황과 구조·행정제도·사회경제적인 여건등을 포함하는 사료의 寶庫를 남기고 있다.

야쿱 백의 활발한 외교교섭의 결과 英露와의 접촉이 빈번해져, 이들 나라의 사절단이 파견되기에 이르렀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T.D. Forsyth 일행의 *Report of a Mission to Yarkund in 1873*과 A.N. Kuropatkin 일행의 *Kashgariia*는 일급의 사료이다. 이러한 공식사절단 이외에 개인자격으로 방문한 영국인 R.B. Shaw, G. Hayward, 러시아인 H.M. Przheval'skii, 미국인 E. Schuyler, 그리스인 Potagos 등의 여행기가 남아있다. 야쿱 백정권이 붕괴된 뒤 중국의 지배권회복 이후에도 신강에 영국과 러시아의 領事館이 설치되어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는데, 이와 함께 서구인들의 발길도 계속 이어져 S. Hedin, A. Stein, G.E. Grum-Grzhimailo, N. Kornilov, V. Radlov, M.I. Veniukov, A. Le Coq, A. Grünwedel, O. Lattimore 등이 모두 귀한 기록들을 전해주고 있다.

## Ⅱ. 文獻目錄

### 〈凡 例〉

1. 조사대상기관은 국내 일부 대학도서관과 기타 공공도서관으로 제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略字를 사용한다.

- (국립) 대한민국 국립중앙도서관
- (국회)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 (고아)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 (고려) 고려대학교 도서관
- (규장) 서울대학교 규장각

- (서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는  
新刊)  
(연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
2. 조사대상자료는 14~20세기 新疆지역에 관한 一次사료로 국한되었으며, 표기문자에 따라 東洋書와 西洋書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3. 東洋書는 書名의 가나다順으로, 西洋書는 著者의 알파벳順으로 정리하였다.
  4. 清代의 政典類(例, 大清會典, 實錄)는 제외하였다.

### 1. 東洋書

#### 戡定新疆記

(清) 魏光燾

고아 952.008

臺北 文海出版社

近代中國史料叢刊內

#### 乾隆年間準回兩部平定得勝圖

서울 4371-57Ax

滿鐵大連圖書館

大連 昭和 6, 寫眞版

#### 舊刊新疆輿圖

撰者不明

연세 952.908-방지서북 5

臺北 成文出版社, 1册

光緒 32年 鉛印本

#### 那文毅公籌劃回疆善後奏議

(清) 章佳容安

고아 952.008

臺北 文海出版社

近代中國史料叢刊內

トウルケスタン

英 D. Ross · H. Skrine 著 · 三橋富

治男 譯

서울 4880-3

アジア內陸叢刊. 東京, 1940,

국립 6-46-4,

同上

#### 北部新疆地誌

滿鐵調查部編

서울 Y60-267-46

露文翻譯ノ聯極東及外蒙調査資料

第46編, 大連, 1938

#### 使西域記

(明) 陳誠

고려 公亮-2202-47

史料叢書 第3編 C0601,

臺北 廣文書局

#### 四夷考

(明) 葉向高

서울 4300-43-13

國學文庫 第13編,

北平 民國 23, 重印.

#### 斯坦因西域考古記

A. Stein 著 · 民國 向達譯

서울 4400-6

上海, 1936.

#### 三州輯略

(清) 和寧

연세 952.908-서북방지 11

臺北 成文出版社, 9卷

嘉慶 10年修舊抄本

#### 西北支那の回教徒

英 G · 파인드레이 · 앤드루 著

志賀勉譯



- 국립 1-91-24,  
 新京, 1941.
- 西陲紀事本末  
 李雲麟  
 연세 952.908-방지서북 3  
 臺北 成文出版社, 3冊, 光緒 4年刊本
- 西陲事略  
 李麟  
 연세 952.908-서북 방지 36  
 臺北 成文出版社, 3卷 光緒年間抄本
- 西陲要略  
 祁韻士  
 서울 4860.12  
 同文館 光緒 4年, 4卷 2冊  
 연세 952.908-방지서북 2  
 臺北 成文出版社, 4卷 道光 17年  
 고려 公亮-2202-47  
 臺北 廣文書局, 史料叢書 3編  
 C0401 (1冊)
- 西域考古錄  
 俞浩  
 서울 4860-2  
 道光 27, 木版, 18卷 12冊.  
 海月堂雜著  
 (欽定) 西域同文志  
 국회 952.95  
 東京, 1964, 東洋文庫刊
- 西域番國志  
 (明) 陳誠·李暹  
 서울 0230-112-14  
 國立北平圖書館善本叢書 第14冊.  
 商務印書館, 民國 26.
- 西域三種  
 (新疆賦·漢書西域傳補注·西域水道  
 記)  
 徐松  
 서울 4860-9  
 道光 9序 木版, 6冊 和裝  
 국립 古 6-71-11,  
 中國木版本, 北平隆福寺  
 刊年未詳
- 西域釋地  
 祁韻士  
 연세 952.908-서북방지 35  
 臺北 成文出版社, 不分卷  
 道光 17年刊本
- 西域水道記  
 徐松  
 국립 2814-2  
 清朝藩屬輿地叢書內  
 廣文書局 影印
- 西域遺聞  
 (清) 陳克繩  
 서울 4400-3  
 邊疆叢書 甲集之一  
 北平 民國 25
- 西域行程記  
 (明) 陳誠·李暹  
 서울 0230-112-14  
 國立北平圖書館善本叢書 第14冊  
 商務印書館, 民國 26
- 聖武記  
 魏源  
 서울 4371-9  
 道光 22序 木版, 14卷 12冊  
 규장 중 4964,  
 古微堂藏版(道光 22), 14卷 22冊.  
 고려 公亮-2260-23

- 世界書局 民國 59, 1冊  
 (中國學術名著 第5輯)  
 국립 古 6-20-83,  
 道光年間 木版, 14卷 22冊  
 국립 古 6-25-19,  
 光緒 7年 木版, 14卷 18冊  
 국립 6-44-48,  
 興亞政務部譯, 東京, 1943
- 綏定縣鄉土志  
 蕭然奎  
 연세 952.908-서북방지 13,  
 臺北 成文出版社, 3冊 光緒 34年刊  
 抄本
- 新疆建置志  
 (民國) 宋伯魯  
 고려 公亮-2820-16,  
 新修方志叢刊邊疆方志 03919,  
 臺北 學生書局
- 新疆國界圖  
 陶 廬  
 서울 4709-46,  
 北平, 20枚
- 新疆國界圖志  
 王樹枏  
 서울 4860-15,  
 宣統元年 木版, 8卷 4冊  
 연세 952.908-방지서북 7,  
 臺北 成文出版社, 宣統元年刊本 8卷
- 新疆紀遊  
 吳蕩辰著, 楊井克己譯  
 서울 \*952-37-W95sJy  
 大阪, 興亞書局, 1943.  
 국립 6-91-149,  
 同上
- 국회 915.297,  
 同上  
 新疆紀行  
 O. Lattimore著  
 神近市子譯  
 국립 6-92-A160  
 東京, 1942.
- 新疆圖志  
 民國 袁大化 等  
 서울 4860-14,  
 民國 12, 重校, 116卷 32冊
- 新疆文獻綜覽  
 서울 4860-26,  
 滿鐵大連圖書館編,  
 大連, 昭和 14, 洋裝
- 新疆賦  
 徐 松  
 서울 4860-18,  
 道光 4序 木版  
 규장 중 5309,  
 光緒 8, 1冊(38張)  
 고려 公亮-2810-20,  
 廣文書局 1968, 1冊  
 국립 2814-2,  
 同上
- 新疆四道志  
 撰者不明  
 연세 952.908-방지서북 12,  
 臺北 成文出版社, 4卷  
 光緒 12年刊抄本
- 新疆事情  
 民國 謝彬著·日外務省  
 調查部譯  
 서울 4860-20,

- 東京, 1934,  
고아 952, 9,  
同上  
新疆山脈圖  
陶 廬  
서울 4709-47,  
北平, 16枚  
新疆山脈圖志  
王樹枏  
서울 4860-16,  
宣統元年 木版, 6卷 6冊  
연세 952. 908-방지서북 6,  
臺北 成文出版社,  
宣統元刊本, 6卷 2冊  
新疆小正  
(清) 王樹枏  
연세 952. 908-서북방지 38  
臺北 成文出版社, 不分卷 民國 7年  
鉛印本  
新疆輿圖風土考  
長白椿園氏  
연세 952. 908-방지서북 4,  
臺北 成文出版社, 5卷  
乾隆 42年刊本  
新疆禮俗志  
(清) 王樹枏  
연세 952. 908-서북방지 9,  
臺北 成文出版社, 1卷  
民國 7年鉛印本  
新疆よりゴビ沙漠を横ぎる  
露リュドミーラ・ネダーチナ著  
中平亮 譯  
국립 朝-99-B5,  
露文翻譯ノ聯極東及外蒙調査資料  
第19編, 大連, 1935.  
新疆志稿  
(民國) 鍾廣生孫盒甫  
연세 952. 908-서북방지 20,  
臺北 成文出版社, 3卷 民國 19年鉛  
印本  
고려 公亮-2820-16,  
新修方志叢刊 邊疆方志 03818,  
臺北 學生書局  
新疆地理志  
(民國) 張獻廷  
연세 952. 908-서북방지 8,  
臺北 成文出版社, 民國 3年石印本  
1冊  
新疆孚化誌略  
欽憲保達  
연세 952, 908-서북방지 19,  
臺北 成文出版社, 不分卷 咸豐 7年  
抄本  
新疆回部志  
(清) 蘇爾德  
연세 952. 908-서북방지 10,  
臺北 成文出版社, 4卷 抄本  
新西域誌  
上原芳太郎編  
서울 1710-59,  
大谷家藏版, 東京, 1937, 2冊  
新平縣鄉土志  
周芳照  
연세 952. 908-서북방지 16,  
臺北 成文出版社, 光緒年間抄本  
御製平定伊犁回部全圖  
(清) 高宗 命編  
서울 大 4371-57A,

- 寫真版, 34枚, 一枚 48.5×64.5cm,  
巴里銅版縮寫  
서울 貴 4371-57,  
銅版畫 木版製詠 63×95cm.
- 五體清文鑑  
京都帝國大學編,  
서울 3900-1, 3900-1A,  
卷 1~32, 補編 卷 1~4,  
京都, 洋裝
- 溫宿府鄉土志  
撰者不明  
연세 952.908-서북방지 14  
臺北 成文出版社, 2冊 光緒年間抄本  
(欽定) 外藩蒙古回部王公表傳  
서울 4600-28,  
(清) 李恒編, 國朝著獻類徵初編  
第14~51卷, 光緒16, 木版, 732卷  
연구 082.2-문 64,  
文淵閣四庫全書 第454冊  
臺北 商務印書館
- 劉襄勤公奏稿  
(清) 劉錦棠  
고려 公亮-2204-17,  
臺北 成文出版社 1968,  
清末民初史料叢書 內  
고아 952.008,  
臺北 文海出版社, 1967,  
近代中國史料叢刊 內
- 伊犁紀行  
日野強著  
국립 6-92-A124,  
東京, 1909.
- 異域竹枝詞  
(清) 福慶
- 서울 0230.97.28-29,  
藝海珠塵, 第28·29冊.  
左文襄公年譜  
(清) 嚴正鈞  
고려 公亮-2521-58,  
臺北 廣文書局 1971, 2冊  
左文襄公全集  
左宗棠  
서울 0280-86,  
光緒 27, 木版, 48冊.  
中亞事情  
日 外務省 調查部 編  
서울 特 4860-22,  
日 外務省調查部調 第26號(秘印)  
東京, 1935.  
中亞細亞紀事  
西德二郎  
서울 4800-5,  
東京, 1986, 二冊  
陸軍文庫  
中亞探險  
橘瑞超著. 關露香編  
서울 4860-4,  
東京, 1912.  
中央亞細亞事情「ソ」領中亞及新疆及附錄  
外務省調查部編,  
국립 3-92-30,  
東京, 1935.  
中アジアの風雲  
內藤智秀著  
국립 6-40-79,  
アジア歴史叢書 第9卷  
東京 日黑書店, 1941-1943.  
中央アジア踏査記

- 英 A. Stein著, 風間太郎譯  
서울 4880-4,  
アジア內陸叢刊  
中央アジア・トルコ語(カシユガール方  
言の研究)  
鷺見秀芳著  
국립 5-20-38,  
東京, 1944, 別冊 テキスト  
支那西北邊疆紀行解題  
後藤富男著  
국립 10-03-197,  
滿鐵研究講座 第81輯, 東京, 1938.  
塔爾巴哈台事宜  
宗室興肇等  
연세 952.908-서북방지 15,  
臺北 成文出版社, 4卷 嘉慶 10年晒  
舊本, 民國 58年重抄  
平定朔漠方略  
溫達等  
연구 082.2-문 64,  
文淵閣四庫全書 第354冊  
臺北 商務印書館  
平定準噶爾方略  
傅恒等  
연구 082.2-문 64,  
文淵閣四庫全書 第357~359冊  
臺北 商務印書館  
(欽定) 平定回疆勦擒逆裔方略  
曹振鏞  
서울 4371-7,  
道光 10序 木版, 80卷 24冊  
哈密志  
清 鍾方  
서울 4394-12,  
北平 禹貢學會, 民國 26刊  
51卷 2冊(邊疆叢書 甲集之二)  
연세 952.908-서북방지 17,  
臺北 成文出版社, 51卷 民國 26年  
鉛印本  
皇明四夷考  
서울 4366-46,  
(清) 鄭曉  
吾學編, 木版, 32冊 中  
서울 4300-43-1,  
民國 23, 洋裝, 國學文庫 第1編  
국립 古 6-24-29,  
吾學編, 22-23,  
木版 萬曆 27  
(欽定) 皇輿西域圖志  
서울 4860-3,  
乾隆 47, 52卷 24冊  
연구 082.2-문 64,  
文淵閣 四庫全書 第500冊  
臺北 商務印書館  
고아 915.2,  
文友書店刊  
皇朝藩部要略  
(清) 祁韻士  
국립 한-64-9,  
中國木版本, 浙江書局 18卷 世系 4  
卷 合 8冊.  
現代新疆  
露 C.B. 네더치ン著, 中平亮譯  
서울 4860-25,  
南滿洲鐵道株式會社經濟調查會  
經調資料 第79篇  
大連, 1935.  
回疆志

- 蘇爾德  
연세 952.908-방지서북 1,  
臺北 成文出版社, 4卷 乾隆年間抄本
- 回疆通志  
(清) 和寧  
서울 4860-17,  
民國 14序, 12卷 4冊 和裝  
국립 古 6-71-37,  
民國年間, 8冊 活字本
- 興復哈密國王記  
(明) 馬文升  
서울 4366.43.10.  
長沙 民國 27, 影印.  
紀錄彙編 10內  
고려 公亮-2202-47,  
臺北 廣文書局, 史料叢書 3編  
C0601,
- 興復哈密記  
(明) 馬文升  
서울 0230-121-9,  
今獻彙言 第9冊內
2. 西洋書
- Andrews, Fred H.  
*Descriptive Catalogue of Antiquities  
Recovered by Sir Aurel Stein*  
Delhi, 1935,  
서울 H020-52.
- Baddeley, John F.  
*Russia, Mongolia, China*  
London, 1919, 2 vols  
서울 大 K100-78
- Bretschneider, E.  
*Mediaeval Researches from Eastern*
- Asiatic Sources*  
London, 1910, 2 vols.  
서울 H200-16
- Catalogue de la Section du Turkestan; Precede d'une notice topographique publie par la Commission Imperiale Russe*  
St. Petersburg, 1873,  
서울 大 958-4-C28.  
Dabry de Thiersant, P.  
*Le Mahometisme en Chine et dans le Turkestan oriental*  
Paris: Ernest Leroux, 1878, 2 vols.  
서울 C700-11-1-2.
- D'Anville, Jean Baptiste Bourignon  
*Nouvel atlas de la Chine, de la Tartarie Chinoise, et du Thibet*  
Le Haye, 1737  
서울 大 K080-13
- Dutreuil de Rhins, Jules Léon  
*Mission scientifique dans la Haute Asie, 1890~1895,*  
Paris, 1897~1898, 3 vols,  
서울 K100-88
- Grünwedel, Albert  
*Altbuddhistische Kultstätten in Chinesische-Turkistan*  
Berlin, 1912,  
서울 H020-9
- Grünwedel, Albert  
*Alt-Kutscha*  
Berlin, 1920  
서울 貴 E060.23
- Haidar Mirza(Tr. by E.D. Ross, notes

- and maps by N. Elias.)  
*The Tarikh-i Rashidi of Mirza Muhammad Haidar: A History of the Moghuls of Central Asia*  
 London, 1895  
 서울 H300-92
- Hartmann, M.  
*Der islamische Orient*  
 Berlin, 1905-1910  
 서울 H360-13
- Hartmann, M.  
*Zur Geschichte des Islam in China*  
 Leipzig, 1921  
 서울 H230-26
- Hellwald, Friedrich von  
*Zentralasien. Landschaften und Völker in Kaschgar, Turkestan Kaschmir und Thibet*  
 Leipzig, 1875  
 서울 K280-16
- Humboldt, Alexander von  
*Asie centrale. Rescherches sur les Chaines de montagnes et la climatologie comparée.*  
 Paris, 1843, 3 vols. & Atlas.  
 서울 K280-26
- Landsdell, Henry  
*Chinese Central Asia*  
 London, 1893, 2 vols.  
 서울 K150-3
- Landsdell, Henry  
*Russian Central Asia*  
 London, 1885, 2 vols.  
 서울 K280-8
- Le Coq, Albert von  
*Die buddhistische Spätantike in Mittelasien*  
 Berlin, 1922-1926, 5 vols.  
 서울 大 E060-19
- Le Coq, Albert von  
*Chotscho*  
 Berlin, 1913  
 서울 貴 E060-24
- Le Coq, A von  
*Osttürkische Namenliste mit Erklärungsversuch*  
 Stockholm, 1922  
 서울 K150-12
- Le Coq, Albert von  
*Von Land und Leuten in Osttürkistan*  
 Leipzig, 1928  
 서울 K280-20
- Olearius, Adam  
*Relation du voyage d'A.O. en Muscovie, Tartarie, et Perse,...*  
 Paris, 1666, 2 vols,  
 서울 K070-81, K070-81C
- Russie et l'Angleterre en Asie Centrale.*  
 Paris, 1886  
 서울 H380-7
- Schuyler, Eugene  
*Turkistan*  
 London, 1876, 2 vols.  
 서울 K280-10
- Skrine, Clarmont Percival  
*Chinese Central Asia*

- London, 1926  
서울 K100-10
- Skrine, F.H. & Ross, E.D.  
*The Heart of Asia*  
London, 1899  
서울 H200-29
- Stein, Aurel  
*Ancient Khotan*  
Oxford, 1907, 2 vols.  
서울 H020-46
- Stein, Aurel  
*Innermost Asia*  
Oxford, 1928, 4 vols.  
서울 大 H020-19  
연세 O915-St-81i  
고려 950-S 819i
- Stein, Aurel  
*Memoir on Maps of Chinese Turki-  
stan and Kansu, from the Surveys  
made during Sir Aurel Stein's  
Explorations*  
Dehra Dun, 1928, 2 vols.  
서울 K150-17
- Stein, Aurel  
*Ruins of Desert Cathay*  
London, 1912, 2 vols.  
서울 H020.2  
연세 915-2-St34r
- Stein, Aurel  
*Sand-buried Ruins of Khotan*  
London, 1903  
서울 H020-8
- Stein, Aurel  
*Serindia; Detailed Report of Expl-  
oration in Central Asia and West-  
ernmost China*  
Oxford, 1921, 5vols.  
서울 大 H020-20  
연세 O915-St81s
- Vámbéry, Arminius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r  
Turko-Tatarischen Sprachen*  
Leipzig, 1878  
서울 G190-1
- Wenjukow, Oberst(tr. by Krahmer)  
*Die russisch-asiatischen Grenzlande*  
Leipzig, 1874  
서울 K310-9
- Wessels, S.J.  
*Early Jesuit Travellers in Central  
Asia, 1603~1721*  
The Hague, 1924  
서울 H230.68 (2 copies)
- Wood, John  
*A Journey to the Source of the  
River Oxus*  
London, 1873  
서울 K280-7
- Yule, Henry tr. & ed.  
*Cathay and the Way Thither: Being  
a Collection of Medieval Notices  
of China*  
London: The Hakluyt Society,  
1866, 2 vols.  
서울 H230-38  
London: The Hakluyt Society,  
1915-16, new ed., 4 vols.  
서울 H230-38a